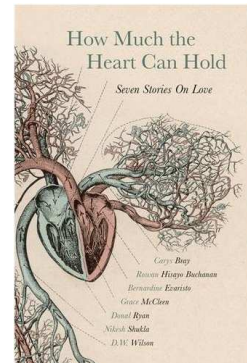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HOW MUCH THE HEART CAN HOLD: Seven Stories on Love
가제 : 심장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사랑에 관한 일곱 가지 이야기
저자 : Bernardine Evaristo 외 6인
출판사: Sceptre
발행일: 2016년 11월 3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소설/ 로맨스



- * “깜짝 놀라게 하는 글들이 사랑에 관한 문학에 가장 멋진 파문을 일으킨다.” – 「파이낸셜 타임스」
- * 자기애, 가족에 대한 사랑, 광적인 사랑 ... 수상 경력이 있는 일곱 명의 작가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수많은 모습과 의미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아마도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거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랑은 반드시 연인 사이에서만 형성되는 감정은 아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성적인 사랑 ‘에로스’, 인간에 대한 광범위하고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 광적인 집착이 낳은 사랑 ‘마니아’처럼 우리에게 다소 친숙한 종류와 더불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성되는 사랑 ‘스토르게’, 우애를 의미하는 ‘필리아’, 자기애를 뜻하는 ‘필라우티아’, 합리적인 판단이 감정에 개입하는 실용적인 사랑 ‘프라그마’ 모두 사랑이라는 단어로 한데 묶을 수 있다. 이 단편 모음집에서는 일곱 가지 사랑의 모습을 일곱 명의 실력 있는 작가가 들려주는 인상적인 이야기로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본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조금 낯설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관계에서 피어나는 사랑, ‘필리아’를 그린 첫 번째 단편 「Before It Disappears(사라지기 전에)」는 응답 받지 못하는 서글픈 사랑의 이야기다. 그러나 짝사랑이 아닌, 결혼한 부부의 삶을 보여준다. 심각한 거식증을 앓고 있는 중국인 아내 조이와 그런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는 남편 리처드는 엉망이 되어버린 결혼생활을 간신이 이어가고, 조이가 현실에서 달아나는 환상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안 남편은 그녀를 배신하면서도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쓴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해버린 감정, ‘마니아’를 보여주는 단편 「Magdala, Who

Sometimes Slips(가끔 빠져버리는 그녀, 막달라)」에서는 열다섯 살 때부터 오로지 한 남자, 로버트만을 바라본 여자 막달라의 무서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뒤에도 그를 향한 마음은 전혀 사그라지지 않고, 막달라는 로버트와 함께 했던 모든 일, 함께 갔던 모든 장소를 집 안에 박물관처럼 전시하며 뜨거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혼자 읊조리듯 이야기하는 막달라의 이 집착 가득한 감정은 거부감보다는 안타까움과 연민을 자아낸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그린 단편 「**White Wine**(화이트와인)」에서는 한 시트콤 작가가 여동생 루파의 삶을 들려준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아시아 여성 루파는 소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늘어놓는 직장상사 때문에 괴로워한다. 상사에게 인정 받고 싶은 마음에 루파는 와인에 대해 공부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상사는 왜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려 하냐며, ‘자학하지 말라’고 더 핀잔을 준다.

가족간의 사랑을 그린 「**A Series of Codas**(종결의 연속)」는 이혼하고 아들을 홀로 키우는 주인공이 병으로 쓰러진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서 두 사람에게 느끼는 막중한 책임감을 짐이 아닌 진한 사랑의 감정으로 느끼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목에 포함된 ‘종결’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는 슬픈 이야기 대신, 삶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해가고 그 속에서 가치를 찾는 과정이 그려진다. 그 밖에도 어린 시절 사랑했던 소녀를 수십 년 만에 찾아나선 중년 남성의 여정을 보여주는 「**The Human World**(인간 세상)」, 섹스와 몸에 집착하는 아홉 살짜리 소녀를 통해 에로스의 의미를 짚어본 소설 「**The Love Story**(러브스토리)」도 사랑의 또 다른 단면을 펼쳐 보인다.

모든 감정이 그러하듯 이 다양한 사랑의 감정도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여러 경계와 맞닿아 있는 애정이 한사람에게 드리우는 무게, 그 무게를 감당하는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저자 소개>

버나딘 에바리스토(**Bernardine Evaristo**)는 『Mr Loverman』 등 일곱 권의 소설을 발표했다.

캐리스 브레이(**Carys Bray**)는 단편 모음집 『Sweet Home』과 코스타 북 어워드(Costa Book Awards) 결선 진출작인 『A Song for Issy Bradley』를 비롯해 소설 『The Museum of You』를 썼다.

D. W 윌슨(**D. W. Wilson**)은 캐나다 출신의 소설가로 단편 모음집 『Once You Break a Knuckle』, 소설 『Ballistics』를 발표했다.

도널 라이언(**Donal Ryan**)은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로, 리머릭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단편을 쓰고 있다.

그레이스 맥클린(**Grace McCleen**)은 옥스포드 대학교와 요크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데스몬드 엘리엇 상(Desmond Elliott Prize)과 베티 크라스크 상(Betty Trask Award) 수상작인 『The Land of Decoration』 등을 발표했다.

니케쉬 슈클라(**Nikesh Shukla**)는 시트콤 각본가 겸 소설가로 『Coconut Unlimited』, 『Meatspace』 『The Time Machine』 등을 썼다.

로완 히사요 뷰캐넌(**Rowan Hisayo Buchanan**)은 「하버드 리뷰」, NPR의 「셀렉티드 쇼트」 등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소설 『Harmless Like You』 등을 발표했다.

제목 : THE HEART OF HENRY QUANTUM

가제 : 헨리 쿼텀 씨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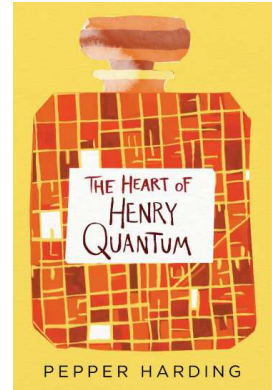
저자 : Pepper Harding

출판사: Gallery Books

발행일: 2016년 10월 4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코믹 소설



***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체코 판권 계약 체결**

*** “뒤늦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삼각관계에 관한 매력적인 데뷔 소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빠른 전개와 워트 넘치는 대화, 술술 이어지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단 하루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 「북리스트」**

40대 광고회사 중역 헨리 쿼텀의 문제는 너무 생각이 많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마주치는 모든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이 꼬리의 꼬리를 물며 온갖 분야와 영역으로 가지를 뻗쳐간다. 그러니 정작 중요한 일은 깜박 잊어버리기 일쑤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다가온 12월 23일 아침, 헨리는 아내 마가릿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번쩍 깨닫는다.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인인 아내에게 잘 어울릴만한 ‘샤넬 넘버 5’ 향수를 사기 위해, (작년에도 똑같은 선물을 했다는 건 까맣게 잊은 채) 헨리는 일단 출근을 했다가 회사에서 슬쩍 빠져 나온다. 그러나 간단한 쇼핑으로 정리될 줄 알았던 외출은 어디로 뻗칠지 모르는 헨리의 머릿속처럼 온갖 우연과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백화점으로 향하는 헨리의 머릿속은 어느 때처럼 눈에 들어오는 풍경에 따라 온갖 생각들로 채워지고, 주제는 물리학과 철학, 환경문제를 넘나든다.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던 마가릿과의 결혼생활이 왜 이렇게 시들해졌을까 라는 고민도 끼어든다. 아내 역시 썩 행복하지 못한 건 분명해 보이는 것이, 가끔 자신에게 쏟아내는 경멸의 말들이 ‘어둠의 에너지’로 가득하다는 것을 헨리도 또렷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걸던 헨리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친다. 4년 전 아내 몰래 만났던 여자, 데이지였다. 데이지 역시 유부녀였고 두 사람은 꽤 깊은 사이로 발전했었지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던 데이지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사이, 데이지는 이혼을 했다고 근황을 전하며 헨리에게 둘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던지시 비추기 시작한다.

그 시각, 마가릿도 헨리 몰래 피터를 만나러 나선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리저리 방황하며 자리를 잡지 못했던 마가릿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남편 헨리가 잠시도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인 것과 달리, 마가릿은 모든 면에서 그와 정반대라 단순하고, 자기주장도 강하고 싫고 좋은 것도 분명했다. 인생 계획도 철두철미하게 짜놓고, 절대 실패 없이 끌어갈 수 있는 배짱과 용기도 있었다. 이미 헨리와의 결혼생활에 진절머리가 난 마가릿은 벌써

이혼 후에 벌어질 일들까지 대비하며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 이게 다 헨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시종일관 당당하다. 하지만 그 날, 마가릿 역시 피터를 만나러 가는 길에 별의별 사건을 다 겪는다. 히치하이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웬 낯선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바람에 또 다시 발목이 묶인다. 그리고 그런 시련 아닌 시련 끝에 마침내 만난 피터에게서마저 남편 못지않은 먼 거리감을 느낀다. 어차피 즐길 생각이었을 뿐 진지한 감정은 아니었지만 그날 따라 말할 수 없이 큰 실망을 안겨주는 피터를 보며 마가릿은 허무해한다.

이야기는 헨리와 마가릿, 데이지의 시선을 오가면서 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다. 양자물리학부터 신경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울상, 존재론, 불교까지 설새 없이 돌아다니는 헨리의 머릿속 바쁜 흐름은 괴롭고 힘든 일은 진득하게 해결하기보다 일단 피하고 보려는 그의 생활 방식과 잘 어울리면서도 어긋나는 묘한 면을 드러낸다. 날이 갈수록 실망스러운 남편 때문에 자신만의 삶을 따로 탄탄하게 구축한 마가릿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마음속에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인 꿈과 소망이 있었는지 조금씩 드러난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들이 거니는 샌프란시스코 곳곳의 거리와 각자가 일하는 공간, 마주치는 사람들까지 빠르게 스쳐가며 속도감 있게 이어지는 이야기에 작가의 기발한 유머감이 더해져 읽는 재미를 더한다.

과연 헨리는 그 허술한 선물이나마 무사히 구입할 수 있을까? 데이지와 의 만남은 그저 우연으로 끝날까, 새로운 사랑의 출발점이 될까? 하룻동안 일어난 일이라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이 다 끝나갈 때쯤, 헨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린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끝까지 궁금증을 자아내며 독자들을 붙든다.

<저자 소개>

페퍼 하딩(Pepper Harding)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 중인 작가의 필명이다. 뉴저지 출신으로, 시카고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제목 : BARREN COVE

가제 : 바렌 코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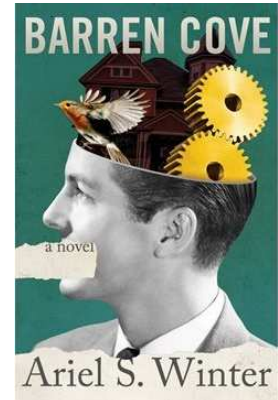
저자 : Ariel S. Winter

출판사: Atria/Emily Bestler Books

발행일: 2016년 4월 26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소설/ SF 소설



- * 데뷔소설 『*The Twenty-Year Death*』로 LA 타임스 도서상 결선에 오르고 스티븐 킹, 제임스 프라이, 앨리스 시볼드와 「뉴욕타임스 북 리뷰」의 극찬을 받은 작가의 SF 신작
- * “로봇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족 드라마 ... 그들의 시각에서 들여다본 인간성의 불안한 자화상” - 『웜 바디스(*Warm Bodies*)』 작가 이삭 마리온

인간이 누리던 세상의 권력이 로봇의 손으로 넘어간 세상, 인간이 창조한 로봇이 더 이상 기계로만 머물지 않고 감정과 생식기능까지 갖춘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로봇은 또 어떤 삶을 이어갈까? 작가는 그 호기심을 로봇들로 이루어진 한 가족과 그들 사이에 끼어 사는 인간,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로봇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사람이 나이가 들 듯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 ‘구식’이 되는 로봇 세상에서 닳아빠진 고물이 된 늙은 로봇 사피엔이 개츠비를 바라보던 닉 캐러웨이 못지 않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인간인 비치스톤과 그를 입양한 로봇 가족의 관계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 방식의 이 소설에서 우리는 안 내자를 자처한 사피엔을 따라 그 희한한 가족의 수수께끼 같은 역사와 온갖 감정이 분출되는 구성원들 간의 묘한 관계를 하나씩 발견하게 된다. 그저 정교하다는 표현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로봇의 심리적 갈등과 감정, 인간처럼 욕망과 질투, 분노, 잔혹한 면을 두루 갖춘 이들의 모습에는 그들을 만든 인간의 모습이 복사라도 한 것처럼 생생하게 담겨 있고, 그런 상황을 구경하는 다른 로봇과 소수의 약자가 되어버린 인간의 삶은 우리에게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의문을 제기한다.

사피엔은 도시에서의 삶에 지칠 대로 지쳐 바렌 코브에 도착했다. 이제 좀 쉬고, 인간으로 치면 죽음에 해당하는 ‘기능 비활성화’를 감행할 최적의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푸른 바다가 펼쳐진 언덕 위의 집도 빌렸다. 그러나 조용히 지내려던 결심은 호기심을 잡아 끄는 집주인 가족 때문에 금세 무너진다. 절벽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에 인사차 들렀던 사피엔은 뜻밖에도 이제는 극소수만 남은 귀한 인간이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래 전부터 인간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사피엔으로선 비치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청년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그를 통해 늘 궁금해하던 인간의 특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사피엔은 이미 설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가족들 살펴보니 그의 관심을 끄는 존재들이 계속 등장한다. 아름다운 외모에 늘 전전긍긍하고 바라는 것이 많은 여자 로봇 매리와 성미가 고약하고 남을 괴롭

히는 일이 취미인 자신만만한 켄트, 그리고 괴물 같은 본성을 겨우 억누르며 누구의 지시나 요구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반항적인 로봇 클락까지, 다들 어딘가 꼬여 있고 문제가 많은 가족들을 보며 의아해하던 사피엔에게, 이 집안의 집사라 할 수 있는 컴퓨터 ‘딘’은 흥미진진한 가족사를 들려준다. 아시모프 3000이라는 로봇이 맨 처음 친자식인 메리와 켄트를 키우다가 인간의 아이 비치스톤을 데려다 키우게 된 사연, 그 일로 친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생긴 사건들, 이후 폭력과 갈등이 난무할 정도로 심각해진 갈등 등 외딴 저택에서 외부와 거의 접촉하지 않고 살아온 이들 사이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 분명했다. 그리고 사피엔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이 있으리라 직감한다. 이러니 ‘우아하게 생을 마감하리라(비활성화되리라)’ 다짐했던 사피엔도 그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사피엔은 수시로 저택을 드나들며 이 미스터리한 가족 한 명 한 명과 만나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과 같은 로봇에게서 그 동안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인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복잡한 가족의 관계 구도 속에 숨겨진 사랑과 배신, 위험한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사피엔의 운명에도 새로운 방향이 나타난다.

기술이 창조와 창조된 결과물의 경계를 계속해서 허물 때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미래, 즉 인간과 로봇의 간극이 가느다란 틈 정도로 좁혀진 세상과 점점 줄어드는 인구만큼 함께 허물어지는 인간성의 미래를 놀라운 상상력과 감동적인 이야기로 조합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애리얼 S. 윈터(Ariel S. Winter)는 데뷔소설 『The Twenty- Year Death』로 ‘로스앤젤리스 타임스 도서 상(Los Angeles Times Book Prize)’과 ‘샤무스 상(Shamus Award)’, ‘맥캐비티 상(Macavity Award)’ 결선에 올랐다. 그 외 어린이 그림책 『One of a Kind』를 쓰고 블로그 ‘We Too Were Children’을 운영하고 있다.

제목 : WE LOOKED LIKE GIANTS

가제 : 거인 같았던 우리

저자 : Melissa Josias

출판사: (에이전시) The Ampersand Agency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 문학



*** 남아공 출신 작가의 신선하고 깊이 있는 시선**

*** 자살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훌쩍 떠난 젊은 여성에게 하나 둘 나타나는 ‘살아야 할 이유’**

에비가 겨우 열한 살 때 동네에서 가장 친한 친구 벤자민 손에 이끌려 떠밀리듯 본 광경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끈질긴 기억이 되었다. 하지만 그 광경이 다름아닌 에비 자신이 가장 바라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느 때와 다를 것 없던 평범한 수요일 오후, 에비는 벤자민과 함께 고속도로와 이어진 거대한 다리 난간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두 사람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붉은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한 여자가 다리 난간을 붙들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에비는 곧 그녀가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챈다. 모건이라는 언니였다.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 모여들었지만 다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에비는 누구든 빨리 차를 몰고 모건에게 가서 물어말려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지만, 지켜보는 사람들 누구도 그런 기색은 없었다. 어서 뛰어내리길 기다리기라도 하듯 눈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에비가 초조해하던 찰나, 모건은 정말로 몸을 날리고 말았다. 천천히, 난간을 잡고 있던 팔을 풀고 그 아래 차가운 강물 아래로, 사라졌다. 충격에 빠진 에비는 왜 그런 끔찍한 장면을 굳이 보게 했냐고 벤자민에게 화를 냈다. 보지 않았더라면, 그 날도 다른 날들처럼 평범하게 지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비는 그 날 이후 수많은 밤을 모건이 뛰어내리던 순간 주변 풍경과 소리를 생생하게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6년여가 흘러 열일곱 살이 되었을 무렵 그 기억은 많이 희미해졌지만, 뜻밖의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더 살아갈 힘이 없다는 확신과 함께 모건처럼 생을 마감해야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다.

죽기로 결심한 에비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친구인 벤자민에게 편지를 남기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떠난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그래서 죽으려는 결심을 막을 사람이 없는 장소로 가야 했다. 처음 자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는 그 감정을 눌러보려고 나름 애를 썼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보고, 가족들과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소중함을 느껴보려고 했다. 하지만 살아있기에 느끼는 고통은 떠나야 하는 괴로움보다 훨씬 크다는 결론만 되돌아왔다. 사실 꽤 오랜 시간을 버텼다는 확신도 들었다. 그리고 지금껏 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야겠다는 결심만큼 깊은 열정을 느껴본 일도 없었다. 결국 에비는 낯선 도시의 고층 빌딩에서 몸을 날리기 위해, 여권과 짐을 챙겨 LA로 떠났다.

그러나 에비의 결심은 예상치도 못한 일들로 자꾸만 지연되고 가로막힌다. 한 번도 와본 적 없고 그래서 낯설기만 한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에비가 그대로 세상과 이별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대충 며칠 보내려고 찾아온 모텔에서는 예순 살이 다 된 할아버지 직원이 끼니 하나하나부터 잠 자리까지 세심하게 챙겨주고, 잠을 이루지 못해 찾아간 모텔 근처 카페에서는 괴짜 같은 카페 주인 에릭과 만난다. 곧 카페 문을 닫아야 한다면 청소하는 동안 앉아 있어도 된다고 흔쾌히 허락한 에릭은 블루베리 파이를 가져다 주며 친절을 베풀더니 결국 에비의 이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말했다. 미국인이 아닌 것이 분명한 에비의 발음과 휴가가 아닌 ‘쉬러 왔다’는 표현, ‘끝을 보고 싶다’는 말까지, 어느 것 하나도 흘러 들지 않은 그는 불안해서 그대로 보내줄 수가 없다며 가게 문을 닫고는 기어이 싫다는 에비를 데리고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남아프리카에서 나고 자랐다는 젊은 여자가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미국을 택한 것, 그리고 그 넓은 미국에서도 LA에 온 것, 게다가 넘쳐나는 카페 중에 자신의 가게를 찾아왔다는 건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에릭은 열심히 설명하며, 세상과 등지기로 한 에비의 결심을 되돌리기로 마음 먹는다. 에비는 사실 바로 다음 날 어느 빌딩에 올라가 바로 뛰어내릴 작정이었지만 에릭의 끈질긴 고집 때문에 며칠 미뤄야 할 판이었다. 그때부터 하나씩, 한 명씩, 에비의 확신을 꺾으려는 일들과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에비가 낯선 사람들과 만나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왜 그녀가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는지 그 사연을 조금씩 알게 된다. 슬프고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그 절망에서 빠져 나오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이야기가 흡입력 있게 전개된다.

<저자 소개>

멜리사 조시아스(Melissa Josias)는 남아프리카 웨스턴 케이프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소설 『Zebra Crossing』의 작가 맥 밴더 머버(Meg Van De Merwe)가 운영하는 글쓰기 강좌에서 공부한 후 소설 『After The Quiet』을 발표했다.

NON- FICTION

제목 : THE FOX HUNT

가제 : 여우 사냥

저자 : Mohammed al Samawi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8년

분량 : -

장르 : 회고록



- * 수십만 달러 규모로 북아메리카 판권 계약 체결, 영국, 폴란드와 계약 진행 중
- * 죽음이 목전에 닥친 순간, 소셜 미디어로 뭉친 각국 친구들이 제공한 탈출 경로와 구조 활동으로 목숨을 건진 저자의 실제 이야기
- * 베스트셀러 소설 <Girl on the Train>을 영화화한 마크 플래터 감독이 영화로 제작할 예정

집 바로 바깥에서 수니파 무장단체인 알 카에다와 그에 맞선 시아파 단체 후티 사이에서 오가는 총성과 전투기, 탱크 소리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이 불과 13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 전쟁통을 빠져 나와 무사히 미국으로 건너 왔다. 싸움을 엄청나게 잘 하는 전사도 아니고, 외교적으로 자신을 막아줄 거대한 방패막이 있는 것도 아닌 그저 예멘의 평화운동가인 그를 구해낸 건 페이스북과 트위터, 스카이프 등으로 도와준 다른 나라 친구들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현재진행형 회고록’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탈출의 주인공인 저자는 할리우드 액션 대작 못지 않은 그 놀라운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인 저자의 이야기는 작은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가 그저 맛집이나 여행기를 올리고 패션, 쇼핑 이야기를 공유하는 수단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의 모르는 사람들의 힘만으로 목숨을 건진 것도 충분히 놀랍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적들을 다 죽여야 평화가 찾아온다고 굳게 믿었던 자신이 평화를 위해 인생을 건 운동가가 된 일도 그에 못지 않게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예멘에서 나고 자란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유대인과 유대교는 무조건 물리쳐야 할 적이라고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다. 학교에서도, TV에 나오는 대통령이나 유력한 정치인의 입에서도, 동네 어디를 가든 유대인은 악마와 같은 존재라는 격렬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생겨도 유대인들이 저주한 결과라고들 이야기하고, 야한 영화는 무슬림의 혼을 빼앗기 위해 유대인이 생각해낸 책략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스물한 살, 성인이 된 저자는 우연히 구

약성서를 접하고 20년 넘게 굳게 믿었던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님을 깨닫는다. 진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호기심을 느낀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의 또래 유대인들과 친구가 되고, 자신의 친구들도 그 굳건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종파, 종교를 초월한 평화 운동가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극보수 무슬림 세계에서 그런 행동이 용납될 리 없었고, 점점 조여오는 감시와 협박에 못 이겨 달아난 곳이 하필 사우디아라비아를 등에 업은 수니파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사이에서 격렬한 전쟁이 한창인 수니파 지배 지역이었다. 시아파 주둔 지역에서 내려온 그를 감히 숨겨주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는 걸리기만 하면 죽을 목숨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비스킷으로 연명하며 숨어 지내며 온라인으로 구조요청을 보낸 그를 살리기 위해, 미국,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 친구들이 발벗고 나섰다. 저자까지 총 네 명이었던 팀은 친구들이 벌인 구호활동 덕에 총 5개 대륙, 수백 명에 달하는 전문가와 학자, 일반인, 문화계 인사가 참여한 국제적인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회고록에서, 저자가 비행기에 올라 미국 땅을 밟기까지의 그 치열했던 13일의 기록과 보수적인 무슬림으로 살던 삶을 모두 버리게 된 이야기가 흡입력 있게 전개된다.

<목차>

- 1장. 소셜 네트워크
- 2장. 나를 바꾼 세 가지 – 읽기, 바로잡기, 종교
- 3장. 서른 개의 은
- 4장. 구원!
- 5장. 여우 사냥
- 6장. 복음 전파
- 7장. 코앞에 닥친 실제 위기
- 8장. 거기 누구 없어요
- 9장. 소셜 엔진, 풀 가동
- 10장. 정의로 뭉친 연맹
- 11장. 네 친구 아니니?
- 12장. 보상 없고, 위험도 없다
- 13장. 마지막 단 하나의 선택
- 14장. 전화 게임
- 15장. 행운의 여신이어 (이하 생략, 총 21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모하메드 알 사마위(Mohammed Al Samawi)는 예멘 출신의 평화운동가로 종교와 문화를 초월한 대화를 위한 여러 운동에 참여해 왔다. 미국에서 자신의 예멘 탈출기와 예멘 전쟁, 난민 문제, 중동 분쟁에 관한 강연을 벌이고 있다.

제목 : Bloody History series
가제 : 잔혹한 역사 시리즈
저자 : John D. Wright / Ben Hubbard
출판사: Amber Books
발행일: 2017년 5월 19일 (공통)
분량 : 224 페이지 (공통)
장르 : 역사



- * 화려하고 세련된 유럽의 중심 도시 런던과 파리,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거쳐야만 했던 잔혹하고 피비린내 진동하는 사건들과 주요 인물을 시대순으로 정리한 역사 시리즈
- * **180여** 장의 흑백 사진, 컬러 사진과 회화, 조각 작품, 지도가 페이지마다 담긴 생생한 역사서

1. 런던의 잔혹한 역사 - 범죄, 부패, 살인(Bloody History of London - Crime, Corruption and Murder)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로 수많은 명언을 남긴 새뮤얼 존슨은 런던에 대해서도 한 마디를 남겼다. “런던이 지겨워진다면 그것은 곧 인생이 지겨워진 것”이라는 그의 말에는, 그만큼 런던에서 사람의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로 런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부터 극심한 빈곤, 천문학적인 돈이 오간 금융 스캔들부터 연쇄살인마, 공개처형, 제대로 미친 군주, 실제 존재했다고 믿기 힘든 야만적인 정신병원까지 온갖 어둡고 놀라운 사건들이 가득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난 2,000년 동안 런던이 지나온 길을 하나하나 훑으며 도시의 가장 하층부를 들여다보고, 번쩍이는 상류층의 삶 뒤에 감추어져 있던 결핍과 어둠도 함께 드러낸다. 로마시대에 도시의 모습이 갖추어진 시점부터 바이킹의 침략을 견뎌낸 뒤 활발한 무역 도시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중세 시대에 벌어진 잔혹한 고문과 종교개혁 시대의 화형, 왕정복고 시대의 방탕하고 문란했던 삶, 대공황을 일으킨 남해 포말 사건, 정치에 끼어든 지저분한 속임수, 냉전 시대의 존 프러푸모가 일으킨 스캔들, 마르코프 암살 사건까지, 런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끊임 없이 벌어진 사건, 사고, 스캔들을 풍성한 사진 자료와 함께 생생하게 보여준다.

2. 파리의 잔혹한 역사 - 폭동, 혁명, 썩은 고기(Bloody History of Paris - Riot, Revolution and Rat pie)

파리만큼 환상적인 곳도 없고 파리만큼 비극적이고 숭고한 곳도 없다는 빅토르 휴고의 말이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재의 로맨틱한 도시 풍경과 우아한 거리가 자리잡기 전 그 공간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되짚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파리의 정치, 군사, 사회적인 삶과 문화적 역사를 폭동과 혁명, 전염병, 위생 상태가 극도로 나빴던 시절에 벌어진 사건들과 포위작전, 점령, 종교 박해를 통해 조명해본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서 벌어진 전혀 로맨틱하지 않은 일들을 낱알이 보여준다. 고대 갈리아인들이 머물던 도시가 로마에 정복당한 시점부터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되어 버린 2015년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를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바이킹의 침략과 프로이센의 점령, 이어진 나치 점령으로 몸

살을 앓았던 아픈 역사와 더불어 툴루즈 로트레크, 모딜리아니, 에디트 피아프까지 소중한 예술가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된 배경인 동시에 술한 예술가들이 자멸한 장소이기도 했던 파리의 예술 역사와 1572년 가톨릭 대학살, 왕의 처형, 종교적·정치적 갈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더불어 엘로이즈, 잔다르크, 코코 샤넬, 철 가면, 대혁명 지도자인 마라 등 잊을 수 없는 인물들의 삶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목차>

<런던의 잔혹한 역사>

1. 머리말
2. 고대 도시
3. 중세의 도시
4. 튜더 왕가
5. 17세기
6. 18세기
7. 19세기
8. 현대의 런던
4. 종교 전쟁(1562- 1598)
5. 17세기

<파리의 잔혹한 역사>

1. 머리말
2. 고대의 파리
3. 중세 시대
6. 혁명
7. 19세기 혁명
8.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
9. 1차 대전
10. 자유화 – 1920년대와 1930년대
11. 2차 대전
12. 60년대
13. 교외 주택들, 빈곤, 그리고 테러

<저자 소개>

존 D. 라이트(**John D. Wright**)는 텍사스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미국 세 곳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타임」지 리포터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피플」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도 글을 기고해 왔다. 옥스포드 영국 인명사전, 옥스포드 영국·미국 문화사전, 콜린스 영어사전 등의 제작에 참여했다.

벤 허버드(**Ben Hubbard**)는 논픽션 작가로 『Samurai Warrior: The Golden Age of Japan's Elite Warriors 1560–1615』, 『Gladiators: From Spartacus to Spitfires』, 『One-On-One Combat Through the Ages』, 『The Samurai: Swords, Shoguns and Seppuku』 등을 썼다.

제목 : GAINING CURRENCY- The Rise of the Renminbi

가제 : 화폐 전쟁- 인민폐 성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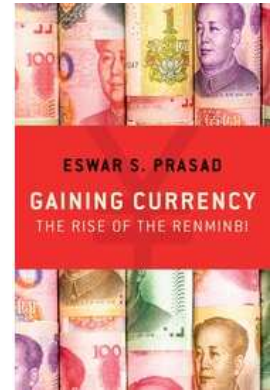
저자 : Eswar S. Prasad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6년 10월 11일

분량 : 344 페이지

장르 : 경제/역사



- * “역사와 국제 경제, 중국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능수능란하게 결합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중국이 세계 통화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 알리안츠 경제자문단 대표, 『**The Only Game in Town: Central Banks, Instability**』의 저자 모하메드 엘 에리안
- * “중국의 복잡한 경제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지극히 유익한 자료가 될 만한 책” - 미국 외교위원회 공동의장, 전(前)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국가로 올라섰다. 2015년 국내총생산(GDP)은 11조 달러로 18조를 기록한 미국의 뒤를 이었다. 전 세계 GDP의 15퍼센트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제무역에서도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12퍼센트를 중국이 차지하며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인 발전 면에서는 이렇게 상승장구하는 중국이지만 중국의 화폐, 위안화는 그 흐름을 뒤쫓지 못하고 있다. 13억 중국인들이 만들어내는 경제력, 그 상징인 위안화는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을 선포하면서 중국 전역에 유통될 통일 화폐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들어냈다. 인민의 화폐라는 의미로 ‘인민폐(Renminbi)’로 불리는 이 위안화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에 밀려 겨우 여섯 번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 같은 격차를 인식하고, 위안화가 전세계적인 화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수많은 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환율이 순수하게 시장 중심으로 결정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흐름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중국 경제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한 위안화가 국제 통화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세계적인 국제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위안화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주요 화폐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노력과 그 변화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단기간에 비교적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요소들을 짚어본다. 더불어 아직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위안화의 영향력이 제대로 드러나려면 중국 정부가 어떤 경제노선을 택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7세기에 종이로 된 화폐를 가장 먼저 발행하여 사용한 나라이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경험한 나라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에서 돈의 활용법과 가치, 의미는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다양하게 바뀌었다. 저자는 중국에 화폐가 처음 등장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경제 개방과 함께 중국 정부가 위안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하고 실행해 온 여러 정책들과 그 한계를 날카롭게 정리했다. 국제통화기금이 위안화를 통화준비금에 사용되는 공식 화폐로 지정하는 등 긍정적인 발전 양상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와 법률구조, 기관 개혁을 딱 잘라 거절하는 현재의 노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즉 투자자들의 시선에서 시장에 위기가 닥치더라도 안전한 화폐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려면 지금과는 현저히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조언과 함께, 막강한 다른 화폐와 위안화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그 역사와 앞으로의 변화 전망과 국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서다.

<목차>

1. 간략히 정리한 역사
2. 화폐 개념
3. 자본계정의 개설
4. 환율 통치
5. 세계로 뻗어 간 위안화
6. 통화준비금
7. 안전에 대한 신기루
8. 카드로 만든 집(불안정한 계획)?
9. 세계적인 영향력
10. 결론

<저자 소개>

에스와르 S. 프라사드(Eswar S. Prasad)는 코넬 대학교에서 무역정책 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국제경제부,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부문 대표를 지냈다. 저서로는 『달러 트랩』(2015년 11월 국내 번역서 출간)이 있다.

제목: WHY WINNERS WIN

가제: 잘 나가는 사람은 왜 잘 나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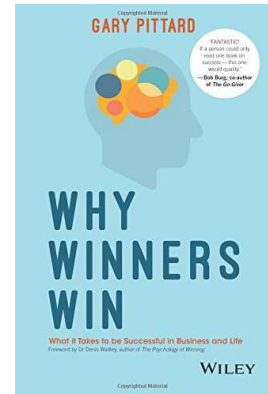
저자: Gary Pittard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10월 31일

분량: 200 페이지

장르: 자기계발



* “저자가 30년간 쌓은 경험과 원칙, 지혜에 실용적인 최신 전략이 더해진 성공의 청사진” - 「*Work a Little Less, Live a Little More*」의 저자 마크 맥케온

* “성공하고픈 사람이 책을 딱 한 권만 읽을 수 있다면, 이 책을 선택하면 된다” - 「*The Go-Giver*」의 공저자 밥 버그

성공해서 똥똥거리며 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은 다르지만, 자유와 안정감을 누리고 시간과 돈, 지식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매일 피땀 흘려 일하고 고생하는 이유도 언젠가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거래업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거래 방법과 사업 운영 방향, 영업의 기본 바탕인 원만한 의사소통의 기술을 가르쳐온 저자는 30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요약하여, 바로 그 성공의 목적지로 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사업적인 성공은 물론 개인의 인생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

저자는 매일 전과는 다른 선택,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먼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낱알이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 장애물을 치우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가 개발한 ‘성공으로 가는 길 찾기’ 모델은 뒤로 잡아 끄는 걸림돌을 치우고 대신 승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와 자질을 찾아 변함없는, 오래 지속되는 성공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저지르는 실수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문제들을 가뿐하게 극복하는 방법, 승자가 되기 위한 자질을 키우고 증폭시키는 방법, 자신만의 특징과 실력을 토대로 남들과 다른 성공 가도를 닦아 나아가는 방법,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4단계 모델과 함께 승자와 실패하는 사람 사이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을 집중 분석한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1부에서는 고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보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장은 성공하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덫과 실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어 2장에서는 이미 성공의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엇이 그들을 그 자리로 데리고 갔는지 특별한 차이를

찾아본다. 책 두 번째 부분인 2부에서는 이 책의 핵심 정보가 본격적으로 제시된다. 즉 성공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찾아내는 구체적인 방안이 소개된다. 3장에서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4단계 실천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고 4장부터 7장까지는 각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부와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자가 생각하는 답을 제시하고, 일과 인생 전체에서 진정한 승자라면 정말로 갖춰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 미묘한 지점을 현실감 있게 집어내고, 모호한 충고 대신 실천 방법을 예시와 함께 분명하게 소개하고, ‘인생극장’을 보듯 일상적으로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올바른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쉽고 재미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부. 내부 점검: 실패와 성공의 원인

1. 왜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을까
2. 승리의 특징

2부. 성공을 향해

3. ‘밤샘’만은 하지 말자
4. 태도
5. 지식
6. 기술
7. 유능한 실력

3부. 인생에서 성공하기

8. 번창하기
9. 승자는 곧 실천가

<저자 소개>

게리 피타드(Gary Pittard)는 사무실 장비 판매 업계에서 일하다가 현재 호주 부동산 중개업 관련 교육과 인재양성 프로그램 업체 ‘Pittard’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다. 30년 이상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제목 : HOW NOT TO HATE YOUR HUSBAND AFTER KIDS

가제 : 애 낳고도 남편 미워하지 않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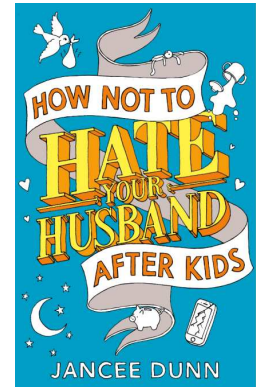
저자 : Jancee Dunn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7년 3월 2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가족/육아



* **5개 출판사의 경합 끝에 수십만 달러 단위로 북미 판권 계약 체결, 이어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러시아와도 계약**

* **“진짜 전문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에 저자 특유의 소탈한 위트가 가미된 책” -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의 저자 존 갓맨**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여성들은 먼저 그 힘든 과정을 마친 ‘선배’들을 만나면 쏟아져 나오는 온갖 조언들을 듣게 된다. 특히 가까운 친구들이라면 아주 중요한 정보는 물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일들을 경고한다. 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제부터 밤에 꿀잠 잘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영화 볼 시간도 없을 거다 등등 믿기 힘든 이야기들 속에 저자의 귀에 꽂힌 한 마디가 있었다. “남편이 정말 싫어질 거다”라는 친한 친구의 경고였다. 아직 예정일이 3개월 남은 그때만 해도, 그 말은 자신과 무관한 말로만 여겨졌다. 남편과는 10년을 함께했고, 둘 다 소란스러운 건 딱 질색이라 큰 소리로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저자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마주 앉은 출산 선배들의 얼굴은 터져 나오는 비웃음을 억누르느라 아주 난리였다. 저자는 그때 그렇게 자신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나중에야 후회한다. 친구의 경고처럼 남편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증오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애 낳고 남편과 심각한 갈등을 겪는 일은 이제 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을 정도다. 대체 왜 이런 갈등이 벌어질까?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 집안일은 전부 아내 몫이 되어 있는 상황. 아이는 설 새 없이 울거나 보채고 모유를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몸을 닦아주느라 눈을 한 시도 쉴 수 없는데 그 와중에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일도 아내가 다 하고 있다면 분노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남편이 사지가 멀쩡하고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바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 책에는 저자가 첫 출산을 마친 후 친구의 따끔한 경고처럼 남편이 사무치게 미워진 후 알게 된 유용한 팁과 교훈이 가득하다.

대부분의 예비 엄마아빠들은 아이를 기다리며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아기 침대나 카 시트를 고르느라 며칠간 검색하고 고민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견하지 못한다. 바로 새로 태어난 아기가 부부의 결혼생활에 주는 영향과, 그 영향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아이가 생긴 후 갑자기 장거리 자전거 타기에 심취한 남편, 집에 있더라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하느라 바쁜 남편 때문에 매번 같은 싸움을 벌이다 지친 저자는 결혼생활이 드디어 파국에 다다랐구나 라는 절망을 느끼며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같은 일로 고민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 상담가라는 사람부터 섹스 치료사도 만나고 심지어 FBI 인질협상 전문가까지 만나서 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을 가라앉히는 전략을 배웠다. 끝없는 싸움과 자칫 깨져버릴지도 모르는 가족의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던 두 사람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두 사람만의 관계에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면, 원래 정립된 부부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웃지 못할 시행착오와 옥신각신 갈등이 이어지는 와중에 다시 평화로운 삶을 찾기 위한 저자의 생생한 고투와 육아, 부부관계, 가정생활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저자의 배꼽 잡는 유머감각과 함께 펼쳐지는 흥미로운 정보서다.

<목차>

엄마들은 분명 질색할 걸

엄마, 아빠, 문제

“얼른 엉덩이 떼고 좀 도와달라고!” 보스턴에서 온 치료사와의 꿈쩍했던 만남

식기세척기로 향한 분노: 가사 분담 문제

파이트 클럽의 규칙

“어머 세상에 월요일이야!” 애 낳고도 주말이 싫어지지 않는 법

우리 아이들은 빨래도 겔 줄 안답니다

논란거리

아이들: 가정 예산이 소진되는 새로운 구멍

펄펄 끓는다: 집 안이 덜 어질러지면 싸움도 줄어든다

마침내 깨닫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둘은 부부라는 걸

<저자 소개>

젠시 던(Jancee Dunn)은 브루클린에 살면서 「The New York Times」, 「Vogue」, 「O, The Oprah Magazine」, 「Parents」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회고록 『Cyndi Lauper: A Memoir』와 아동 도서 등 다섯 권의 책을 썼다. 수필모음집 『Why Does My Mother Have A Tattoo?』는 써버 상 유머 부문(Thurber Prize for American Humor) 결선에 올랐다.

제목 : WHY WALL STREET MATTERS

가제 : 그래도 월 스트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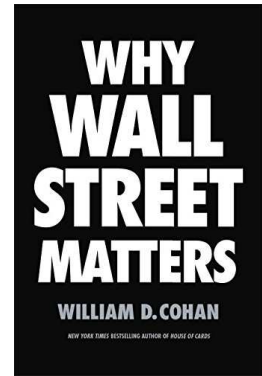
저자 : William D. Cohan

출판사: Random House

발행일: 2017년 3월 21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경제



- * 월 스트리트 **M&A** 투자 전문가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House of Cards」**와 **「The Price of Silence」** 저자의 흥미로운 주장, “그래도 월 스트리트는 존속되어야 한다!”
- * 침체된 경제의 근원으로 꼽혀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월 스트리트, 두텁게 쌓인 오해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알기 쉽게 분석한 경제서

“일반 시민들이 월 스트리트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를 찬성해야 하나 고민할 때, 그곳에서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위험천만한 금융상품이 도박하듯 거래되고 그 속에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분리된 섬처럼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형 은행과, 금융권 곳곳에 도사린 위험한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미국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는 2016년 민주당의 정책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그의 단호한 주장대로, 민주당은 미국 경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거대 금융기관을 쪼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3년 미국에서 투자은행을 상업은행 규모로 쪼개고 분리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 발효되고 66년 여가 지나 그 법과 비슷한 내용의 주장이 정치계에서 대두된 것이다. 공화당에서도 2016년 정책 발표에서 과거의 그 법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다 사실일까? 월 스트리트가 평범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유층의 주머니를 넘치도록 채워주는 도구로 전략했다는 것이 정말일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금융 분야 저널리스트로 꼽히는 저자는 월 스트리트를 둘러싼 깊은 오해와 잘못된 주장을 이 책에서 조목조목 반박한다. 거대 자본이 오가는 그곳에 엄청난 탐욕이 존재하고 여러 면에서 정치계와 시민들의 분노가 월 스트리트로 쏠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소중한게 여기는 일상과 편리한 생활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 다름아닌 월 스트리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아이폰, 대형 TV, 자동차, 페이스북, 트위터 등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든 기술과 상품은 월 스트리트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사 세상에 등장했다 한들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여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미국의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 언제 누구에게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바로 월 스트리트가 맡은 역할이고, 이를 통해 무수한 기술

이 그저 누군가의 머릿속에 담긴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우리 생활 전반을 바꾸는 상품으로 발전한다. 저자는 무조건 월 스트리트를 두둔하는 대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짚어보고 그것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더불어 월 스트리트를 아예 없애거나 무조건 거대 은행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는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으며, 대신 경제 위기를 초래한 일부 은행가, 거래업자, 금융기관의 대표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없어져야 할 타깃이 된 대형은행의 중대한 기능을 알려주고, 없애는 대신 혁신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유지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대다수의 여론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소문과 열띤 주장에 담긴 정보가 과연 진실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태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장. 시작

2장. 은행이란 무엇인가?

3장. 위기

4장. 중앙은행 이야기

5장. - (* 소제목 없음)

6장. 대공황의 교훈

7장. 주식공개의 문제점

8장. 혁신

9장. 월 스트리트가 중요한 이유

<저자 소개>

윌리엄 D. 코한(William D. Cohan)은 듀크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후 동 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17년간 Lazard Frères & Co., Merrill Lynch, JP Morgan Chase 등 월 스트리트 업체들에서 M&A 투자전문가로 일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House of Cards』와 『The Price of Silence』, 2007년 「파이낸셜 타임스」, 골드만삭스가 각각 선정한 비즈니스 분야 올해의 도서 『The Last Tycoons』를 썼다.